

# 근대 이후 일제 강점기까지의 문학 교육 이론의 형성과 전개 과정

김경남\*

|| 차례 ||

- I. 서론
- II. 문학의 개념화
- III. 교과와 문학
- IV. 문학 교육 이론의 형성과 변화
- V. 결론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문학 교육 이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문학의 역사는 문학 교육의 역사라는 주장이 있듯이, 문학 교육은 이론화되기 전부터 존재해 왔다. 그러나 문학 교육에서도 문학 교육의 목적, 문학 교육의 내용 선정,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과 관련된 이론적 체계를 갖추는 일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근대식 학제가 도입된 이후 각종 독본에서 ‘우화’, ‘전기’ 등의 문학 작품이 교재로 활용되었음을 고려할 때 문학 교육의 역사는 근대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근대식 학제 도입기의 교육학 교과서에서 ‘정육(情育)’이나 ‘심미 교육(審美教育)’의 차원에서 문학 교재의 필요성을 논의한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언어의 예술’이라는 차원에서 문학이 개념화되고, 문예라는 용어가 널리 변진 것은 1910년 전후부터로 볼 수 있다.

이 경향에서 1920년대 이후에는 본격적인 ‘예술교육론’, ‘문예교육론’이 제기되었으며, 이 이론은 광복 이후의 문학 교육론의 기반이 되었다. 비록 일제 강점기의 문학 교육론이

---

\* 단국대학교 산학협력연구원

‘예술’, ‘문예’, ‘문학’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된 경우가 많았지만, 문학 교육 이론사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가 일정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규명하는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문학, 예술 교육, 근대, 일제 강점기, 이론화

## I. 서론

우리나라에서 ‘언어의 예술’로서 문학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10년대 전후의 일이다. 문학의 한 형식으로서 ‘소설’ 또는 ‘시’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매우 오래되었지만, 언어 예술의 차원에서 ‘문학’의 개념과 특징을 논한 본격적인 논설은 이광수가 아명 이보경이라는 이름으로 『대한홍학보』 제11호(1910년 3월)에 발표한 “文學의 價値”로 보인다. 이보다 앞선 시기의 교육학 교과서에서도 ‘문학’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소설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과학’ 또는 ‘학문’의 차원에서 문학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 특징을 논한 것은 191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의 차원에서 ‘문학’이라는 용어가 쓰인 것은 근대식 학교 제도가 도입되던 1895년 이후로 보인다. 비록 일본인이지만 한성사범학교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무라지치[木村知治](1896)의 『신찬교육학(新撰教育學)』에는 ‘심미의 이치[審美之理]’를 밝히는 자리에서 “自然者는 元人類之本性而天地之自然妙美는 乃作諸美之測量心이요 文學上之雅趣는 乃爲優美之嗜好心이요 音樂之風韻은 乃爲釀美感이니 其美育之德이 發而爲摸造鑑定者와 鑑技術者와 風致者에 助其道性者也 | 나라.”라고 하여, 문학의 아취(雅趣)와 음악의 풍운(風韻)이 미육(美育)의 주

요 내용임을 언급한 바 있다.

문학 교육은 본질적으로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창작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문학 교육은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문학의 효능과 가치를 인식하고, 문학 교육의 방법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수반될 때 적절한 문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우리의 문학 교육사 재구를 위해 ‘문학의 개념화 과정’ 또는 ‘문학 교육의 이론화 과정’에 대한 탐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논문은 근대식 학교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일제 강점기까지의 문학 교육과 관련된 이론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은, 문학 교육론의 시발점이 된 ‘예술 교육론’ 또는 ‘문예 교육론’의 형성과 변화 과정이 될 것이다.

이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근대 계몽기의 문학 교육과 관련된 연구로는 윤여탁 외(2005)의 근대 독본(讀本) 분석, 박영기(2008)의 근대 아동 문학 교육 형성 과정, 조희정(2012)의 학교 내 문학 교육의 특징, 정호웅(2012)의 근대 계몽기 문학의 특징과 문학 교육, 정충권(2012)의 전통 지식인이 바라본 근대 계몽기의 교육과 문학, 배수찬(2012)의 근대 초기 서양 문학 수용 국면과 문학 교육 등 다양한 성과가 축적되었다. 또한 일제 강점기를 대상으로 한 최지현(2011), 구자황(2011), 전봉관(2011) 등의 문학 교육의 실태 관련 연구, 이동순(2010)의 가요시 장르, 임희경(2012)의 번역·번안 동화, 장경남(2013)의 일제 강점기 교과서나 민간 독본의 고전 문학 교육 실태 등에 대한 연구, 강진호 외(2011)의 조선어 독본과 국어 문화에 대한 연구 등과 같이 문학 교육의 실태와 관련한 분석도 비교적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그럼에도 문학의 개념화 과정이나 문학 교육 이론의 출현과 변화에 대한 분석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문학 교육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기 전

부터 문학 중심의 국어과 교육이 이루어진 것과는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946년 미군정기 공포된 ‘교수요목’의 경우 중학교 국어과의 영역에 ‘국문학사’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제3차 교육과정까지는 국어과의 영역으로 ‘문학’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역 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문학 교육이 등한시된 것은 아니다. ‘교수요목’의 ‘국문학사’를 가르치기 위해 각종 ‘국문학사’, ‘문감(文鑑)’, ‘고전(古典)’, ‘옛글’ 교과서가 편찬되었고, 제3차 교육과정기부터는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제5차 교육과정 이후부터는 ‘문학’이 고등학교 국어과 교과목으로 설정되었다.

이처럼 국어과 교육에서 문학 교육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문학 교육의 필요성이나 당위론에 대한 앞선 논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추측건대 근대 계몽기나 일제 강점기의 문학 교육론이 ‘예술 교육’이나 ‘문예 교육’ 담론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국어과 교육에서 문학 교육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문학 교육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논의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학 교육의 정체성이 확립되기까지 제기되었던 ‘예술 교육론’, ‘문예 교육론’을 살펴보는 일은 현재의 문학 교육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 II. 문학의 개념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문학과 예술의 사회적 효능이나 교육적 가치를 인식하는 문제와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문제는 별개의 논제이다. 이능화(1906)가 ‘국문일정의견서(國文一定意見書)’를 제출하면서 언문소설로 교과서를 만들 것을 제안했듯이<sup>1)</sup>, 근대 계몽기의 교과서에는 각종 전

기, 우화 등의 문학 작품이 교재(教材)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근대적 지식 형성 과정에서 ‘문학’의 개념과 본질에 관한 논의는 거의 보이지 않는데, 이는 지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근대 지식인들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 문학을 연구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학이라는 개념어가 사회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1909년 이후로 보이는데, 이 용어가 빈번히 등장하는 잡지는 『소년』이다. 이 잡지 제2년 제10권(1909.10)에서는 십전 소설 『썰늬버 遊覽記』(신문관)를 광고하면서 “此書는 英國 有名한 文學家 스위프트 氏의 名著를 摘譯한 것”이라고 하여 ‘문학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제2권 제11호(1909.11.)에서는 ‘地理學 研究의 目的’이라는 논문에서 ‘지리학과 미술·문학’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1) 地理學과 美術·文學

地理學과 美術 文學의 關係가 마치 慈母의 子息에게와 陶人의 土塊에게와 같으니, 慈母가 應當 天性的 頑愚를 變하여 秀才가 되게 할 수는 업스나, 그러나 舛태 婦人이 잇기로 詩人 舛태가 생기고 孟母가 잇기로 孟子가 잇난 지라. 詩人 舛른이 日本에 낫더면 舛른이 될 수 업슬 것이며, 詩人 舛태가 썩리던 國 詩歌에 絶望의 思想이 만흔 것은 그 地理學上과 氣象學上의 理由라 한 것이 그러치 아님이 아니니라……

---

1) 李能和, 「國文一定意見書」, 『皇城新聞』, 1906.6.2. 이 논설에서 이능화는 “(전략) 初學諺文호야 재通反切호면 則以坊市行賣之諺文小說로 作爲學習之教科書호고 此外에 既無他書可讀호니 則亦非讀者之過也라 小說之書 | 各國에 皆有之호니 如 譏諷寓托滑稽之類 - 無非有補於世道人心者나 然我邦之諺文小說은 舉皆鄙俚無稽 호야 智識發達에 大有妨碍호니 今可說法以變通之호야 此等小說藏板을 凡官有者는 收入호고 民有者는 買收호야 盡行초毀호여 以妨續刊之源호고 代布新學諺譯之書호야 逐漸誘導호야 開發人民之思想이면 是亦教育之一道也라.(하략)”이라고 하였다.

『소년』에 등장하는 ‘문학’이라는 용어는 ‘소설’, ‘시’ 등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예는 비록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개념 규정은 없었지만, 전통적인 ‘글을 배우는 것’으로서의 ‘문학’에서 ‘언어의 예술’로서의 문학이라는 개념어가 쓰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본격적인 문학론이 제기된 것은 1910년대로 보이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보경(李寶鏡)의 ‘文學의 價値’이다.<sup>2)</sup>

## (2) 文學의 價値

‘文學’은 人類史上에 甚히 重要한 거시라. 이제 余와 兪흔 寒書生이 ‘文學의 價値’를 論하디 ㅎ는 거슨 자못 猥越한 듯하느 至今스것 我韓 文壇에 한 번도 此等 言論을 見티 못하엿느니 이는 곳 ‘文學’이라는 거슬 開却한 緣由 | 로다. 夫 我韓의 現狀은 가장 岌岌하야 全國民이 모다 實際問題에만 齷齪하느 故로 얼마큼 實際問題에 疎遠한 듯하 文學 等에 對하야는 注意할 餘裕가 無하리라. 然이나 文學은 果然 實際와 沒交涉한 無用의 長物일시. ……

이 논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10년 이전에는 ‘문학의 가치’에 대한 논의가 발견되지 않는다. 일부 문헌에서 ‘문학(文學)’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경우도 있으나, 그때의 ‘문학’은 ‘학문’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다.<sup>3)</sup> ‘언어의 예술’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된 용례가 일부 교육학 교과서에서 발견되기는 하나 그 경우에도 ‘심미주의 교육’을 위한 도구로서 거론될 뿐, 문학의 개념이나 특징에 대한 논의는 나타나지 않는다.<sup>4)</sup> 이처럼 문학의 개념화가 더디

2) 李寶鏡, 『文學의 價値』, 『大韓興學報』第11號, 1910.3. ‘이보경’은 ‘이광수’의 아명이다.

3) 『漢城旬報』第14號, 1884.3.8.에 등장하는 “泰西文學源流考”와 같이 ‘문학(文學)’이라는 용어는 ‘학문(學問)’과 유의어로 쓰일 때가 많다.

4) 『독립신문』, 『협성회회보』, 『매일신문』, 『제국신문』, 『황성신문』 등의 신문류와 『친목회회보』(유학생 친목회)를 비롯한 근대 학회보에서도 ‘문학’의 개념과 특징에 관한

게 이루어진 것은 앞에 인용한 것처럼 당시의 한국 지식인들이 이른바 ‘실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보경(1910)의 논설은 ‘문학’의 개념과 특징을 비교적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3) ‘文學’이라는 字의 由來는 甚히 遼遠호야 確實히 其出處와 時代는 攷키 難호나, 何如던 其 意義는 本來 ‘一般 學問’이러니 人智가 漸進호야 學問이 漸漸 複雜히 됨에 ‘文學’도 次次 獨立이 되야 其 意義가 明瞭히 되야 詩歌, 小說 等 情의 分子를 包含호는 文章을 文學이라 稱호게 至호여시며(以上은 東洋), 英語에 Literature(文學)이라는 字도 또호는 前者와 略同호는 歷史를 有호는 者 이라. …… 人類가 生存하는 以上에 人類가 學問을 有호는 以上에는 만다시 文學이 存在호디니 生物이 生存호에는 食料가 必要호과 가티 人類의 情이 生存호에는 文學이 必要호디며 또 生호디라. …… 그러면 文學이라는 거슨 무엇이며, 또 何如호는 價値가 有호뇨? 文學의 範圍는 甚히 넓으며 또 其境界도 甚히 朦朧호야 到底히 一言으로 弊호는 無호나 大概 情의 分子를 包含호는 文章이라 호면 大誤는 無호리라. 故로 古來로 幾多 學者의 定義가 紛紛호디 一定호는 者는 無호고, 詩, 歌, 小說 等도 文學의 一部分이니 此等에는 特別히 文藝라는 名稱이 有호니라.

이광수(이보경)의 문학론은 ‘정적 분자’를 주 요인으로 한다. 이러한 문학의 ‘정적(情的) 특성’에 관한 논의는 최두선(1914)에서도 나타난다. 최두선은 미투 아놀드(Matth Arnold)가 “書籍으로부터 얻는 모든 知識은 文學”이라는 광범위한 정의를 했음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으면서도, 문학이 식물학, 동물학, 정치학, 법률학, 통계 연감 등과 다른 이유는 ‘空想 或은 理想’을 묘사한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짧은 논설이지만 그는 ‘지정의

(知情意)’라는 인간 심리를 기반으로 하여 문학의 생명력이 지식과 정의의 조화에 있음을 논하고자 하였다.

(4) 知識을 滿足하게 한다고 반드시 生命이 有함은 아니라 다시 말하면 知識의 滿足이 生命을 判斷할 수 업도다. 만일 知的 部分이 生命을 判斷하기 不能하면 웃더할가. 情意가 滿足하면 비로소 生命을 經驗할 수 잇으니 生命은 知識의 認知할 바 아니오 오직 情意를 노코는 不能하니 웃더한 글을 보고 生命이 잇음을 感得함은 그것이 情意的 經驗에 感觸됨이라. …… 要件대 文學은 글 가운데에 情意를 늦는 것이니라. 이것이 勿論 完全한 定義는 아니라. 그럼으로 文學은 반드시 情意만 有하다 함이 아니오 情意가 그 主要部分이라 解釋함이 可하리로다.

이 인용문에 나타나듯이 최두선(1914)에서는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리는 대신, 문학의 효용을 ‘지적 부분’을 보완하는 ‘정의 경험’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처럼 ‘정적 분자’, ‘정의 경험’과 관련하여 사용된 또 하나의 용어가 ‘문예(文藝)’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예’라는 용어가 등장한 시점도 ‘문학’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최남선은 『소년』제2권 제11호(909.11.)의 ‘해상 대한사(海上 大韓史)’(十)에서 반도 문명(半島文明)의 장점을 논하면서 “世界文化의 大變動이 잇슬 재마다 荊棘을 披호고 荒蕪를 憇한 者는 半島人이엿스니 갖가운 例證 한아를 들어 말하면 近世의 新文明은 活版 印刷術이 發明되야 文藝를 復興식힌 效力도 힘입엇스되 더욱 큰 動力이 된 者는 航海探險-국 新土地 查出이라 할 터인데(하략)”라고 하였다. 여기에 등장하는 ‘문예부흥’은 서구의 르네상스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는 이광수(1910)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는 “西洋史를 讀호신 諸氏는 아르시러니와 今日의 文明이 果然 何處로 從호야 來호엿

는가. 諸氏는 暇曰 ‘뉴-톤의 新學說(物理學의 大進歩), 다윈의 進化論, 왓트의 蒸氣力 發明이며, 其他 電氣 工藝 等の 發展 進歩에서 來하였다.’ 하리라. 實로 然호도다. 누가 能히 此를 否認호리요 만든 한 번 더 其源을 溯求호면 十五六 世紀頃 ‘文藝復興’이 有함을 發見호지라.”라고 하였다. 또한 “近世 文明의 一大 刺激되는 驚天動地하는 佛國 大革命의 活劇을 演出함이 佛國 革新 文學者 루소(Roussau)의 一枝 筆의 力이 안이며 또 北米 南北戰爭時 北部 人民의 奴隸 愛憐호는 情을 動케 호야 激戰 數年에 多數 奴隸로 하여곰 自由에 歡樂케 호는 者 스토-, 프스터 氏 等 文學者의 力이 안인가.”라고 하였다.

‘문예부흥’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는 현상윤(1918)에서 이루어졌다. 『청춘』제12호에 ‘소성(小星)’이란 필명으로 소개한 ‘文藝復興과 宗教改革의 史的 價値를 論하야 朝鮮 當面의 風氣 問題에 及함’이란 제목의 논문에서는 서구 사상의 핵심 요소를 ‘히브리즘’, ‘헬레니즘’, ‘튜튼이즘’에서 찾고, 문예부흥과 종교개혁을 ‘현대 문명의 아버지요 어머니’로 규정하였다.

(5) 이 두 가지 歷史的 事實은 果然 現代文明에 如何한 波動을 주었는가. 이 問題에 對하야는 밋수리 大學 教授 찰스 에이 엘우드(Charles A. Ellwood) 氏가 자기의 著, 『社會問題(The Social Problem)』에 이러한 解答을 하였다. “近世 社會運動이 가장 큰 것은 個人主義인데 이 個人主義의 運動이 最初로 出現된 것은 基督教界에서 나타난 新教徒의 宗教改革 運動이었다. 그 運動은 實로 中世紀頃에 在하야는 敗德專橫이 無所不至하던 法皇과 教會에 對하야 다만 宗教의 權威를 깨트리는 信徒間의 運動임에 不過하였다. 그러나 이 運動의 精神은 다시 여러 가지 社會問題에 發現되야 或은 民本主義(Democraticism)의 運動이 되며 또 或은 女子 開放問題(The question of women)의 運動이 되야 지금은 이 精神이 現代文明의 重要한 要素가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近世 社會運動 中에 가장 有力한 것은

科學的 運動이니 저 個人主義의 運動이 그 源泉을 宗教改革에서 發한 것과 가티 이 運動의 源泉은 亦是 中世紀頃の 文藝復興에서 發하였다.”고 果然 올흔 解釋이다.

이 글은 종교개혁과 문예부흥의 의미를 압축한 것으로, 두 역사적 사실이 서구 근대화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강조한 글이다. 여기서 현상윤이 주목한 것은 두 역사적 사실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개성 존중’과 ‘인권 발달’이다. 이 점에서 ‘문예’는 ‘문학’보다 ‘사상(思想)’이나 ‘정신 세계’에 더 근접한 개념을 갖는다. 현상윤이 ‘병든 道學’을 비판하면서 ‘思想의 自由’를 주장한 것도 ‘문예부흥’에 포함된 ‘사상적인 면’을 주목했기 때문이다. 그는 “思想은 맞당이 自由로워야 하고 學問은 맞당이 門戶開放이어야 한다. 思想이 한번 自由로워지고 研究가 한번 無制限하게 될 때에 文明이 어서케 進歩되고 社會가 엇더케 發達되는 것은 우리가 文藝復興 宗教改革 以後의 西洋 文明史를 보아 넉넉히 알 것이다.(중략)”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술을 고려한다면 현상윤의 ‘문예부흥’은 단순히 ‘문학’과 ‘예술’을 합친 개념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르네상스’를 ‘문예부흥’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에 대해서는 『창조』 제2호(1919.3.)에 실린 극웅(極熊) 최승만의 ‘르네상스(文藝復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6) 르네상스(Renaissance)를 翻譯하야 文藝復興이라 하나 原來 르네상스라는 말이 꼭 文藝復興이라 特殊한 意味를 가진 것은 안이외다. 르네상스라는 것은 佛蘭西 發音인데 말하면 - 끄리시아나 로-마의 燦爛하든 文明이 中世時代 오래동안 과뭇춧다가 十五世紀頃에 이르러서 다시 光明과 生命을 띄고 나왔다 하야 文藝復興이라고 불으는 것이외다. …… 美術方面에 있어서 는 古代美術의 精神이 復活되었습으로 建築, 彫刻, 繪畫上에 多大한 革命을

일우었스니 이것이 美術 方面에 FIT 른 르네상스라 할 수 잇을 것이요, 文學, 哲學, 神學에 잇서서는 古典에 關한 正確한 智識, 詩歌에 對한 새로운 興味, 緻密하고 秩序 잇는 新思想-이것을 찾게 함도 르네상스라 하겠지요. 科學者로 하여곰 포케니커스나 갈릴네오갓치 天文學에 對한 發見이나 베살리우스나 하-에이갓이 解剖學이나 血液循環說갓튼 發見으로써 르네상스의 事業이라고도 하겠지요. …… 그러니가 只今 말한 것으로만 보드래도 르네상스의 歷史가 文藝뿐만 안이요 科學뿐만 안이요 政治뿐만 안이라 簡單히 말하면 사람 제 스사로가 제 스사로의 精神으로 제 스사로 깨다른 바 自由에 到達하는 歷史의 西歐諸民族間에 表現된 것이라고 해도 좃겠습니다. ……

최승만(1919)에서는 ‘문예부흥’이라는 용어가 프랑스어를 직역한 것이 아니라 15세기의 서구의 시대사조이자 그리스·로마 문명의 부흥을 의미하는 것이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르네상스’가 ‘문학’과 ‘예술’ 이외의 다양한 학문 분야를 포함하는 개념임을 밝히면서 ‘문예’와 ‘과학’을 구분하였다. 이 점에서 1920년 전후에는 ‘문학’과 ‘예술’을 합한 ‘문예’의 개념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창조』제4호(1920.2.)에는 극옹(極熊)의 ‘文藝에 對한 雜感’이 발표되었고, 제6호(1920.5.)에는 춘성생(春城生)의 ‘文藝에서 무엇을 求하는가’가 실렸다. 그 가운데 극옹(1919)를 살펴보자.

(7) 그런데 只今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文藝方面에 對하여 우리 社會가 너무 冷淡하다는 것이다. 冷淡하다고 하는 것보다 너무 暗昧하다는 것이 참 말이 되겠다. 正 甚하게 말하는 이는 閑人의 노름이오 放蕩한 사람의 準備할 冊이라고까지 떠드는 것도 업지 안은 事實인 것 갓다. 우리 社會에는 自古로 文藝(小說과 詩歌를 말함)라는 것이 업섯든 것은 숨길 수 업는 일이다. (중략) 그러나 現代 文藝는 決코 이러한지 않은 것이다. 自然主義 以後의 文藝는 決코 이와 갓치 업는 事實, 잇슬 수 업는 事實을 쓰는 것은 아니다. 自然主義 以前의 文藝, 卽 最近 二世紀間에 勃興된 西歐 文藝思潮의 變遷을 大體

로 갈너 논다하면 (一) 尙古主義(Classicalism)-十七八世紀에 佛蘭西를 中心으로 하고 全歐洲에 興行되는 主義인데 希臘, 拉典의 古風格에 基礎를 삼은 一種의 主義. (二) 로만티시즘(Romanticism) - 日本 사람이 말하는 所謂 浪漫主義인데 十九世紀半 文藝復興 運動이 일어난 後로부터 잇섯든 것이다. (중략) (三) 自然主義(Nationalism)-十九世紀 中半부터 잇섯든 運動인데 로만티시즘의 反動으로서 생긴 것이다. ……

극옹(1919)에서는 ‘문예’가 ‘시’와 ‘소설’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며, 본격적으로 문예사조가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는 문예사조를 소개하면서 “世界의 思潮라는 것은 할 수 업는 것이다. 무엇이 무엇인지도 도모지 分別치 못하든 우리 社會도 어니덧 自然主義의 思潮가 드러온 것갓다.(중략) 나는 이러한 말을 하고 십다. 藝術도 社會를 떠나서는 안이 되겠고 人生을 떠나서는 안이 되겠다고.(하략)”고 말하였다.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1920년 전후에는 ‘문학’, ‘문예’, ‘예술’이라는 개념이 명료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 개념어가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Ⅲ. 교과와 문학

사전적인 의미에서 문학 교육은 “문학 현상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계획, 실천, 평가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내면화 과정 및 송환에 이르는 제도적·비제도적인 전 과정”<sup>5)</sup>을 뜻한다. 이때 ‘제도적인 차원’은 학교교육이나 교과 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학사전』, 대교, 1999, p.285.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문학이 교과외 차원에서 교육 대상이 된 것은 문학 교육 이론이 정립되기 이전부터였다는 사실이다. 달리 말해 문학 교육의 역사는 이론의 역사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이다. 그러나 문학 교육의 목표나 내용 선정, 교수·학습 문제, 평가 등의 원리를 고민하는 문제는 이론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학 교육의 역사와 이론화 과정을 분리하여 고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학 교육의 역사가 이론보다 오래되었음은 근대식 학제가 도입된 이후 교육학 교과서에서 문학을 교육 재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8) 교육과 문학

ㄱ. 欲知審美之爲何物인턴 不可不學審美學이니 何者오 則不外乎教育 上知美之可責也로다. 所謂美者는 何也오 曰難言矣라. 蓋美者는 自天然物 及人工物來호야 而觸吾人之耳目호니 其妙趣微味를 不可名喻로다. 固雖高尚幽雅ㅣ나 如兒童之無知라도 亦能感焉호야 愛美麗之圖畫호며 悅艷濃之花卉호는니 欲使教育으로 完全而進인턴 宜修練此自然의 性質이니 自然者는 元人類之本性而天地之自然妙美는 乃作諸美之測量心이요 文學上之雅趣는 乃爲優美之嗜好心이요 音樂之風韻은 乃爲釀美感이니 其美育之德이 發而爲摸造鑑定者와 鑑技術者와 風致者에 助其道性者也ㅣ니라. 右明審美之理 -木村知治(1896), 『新撰教育學』 第五章

ㄴ. 凡 社會의 生活을 訓練하야 發達되는 者는 教科 統一의 根底오, 하여곰 盡力 成功되는 者는 教科 統一의 內容이니 若 社會의 生活을 離호야 讀書, 習字, 地理, 歷史, 等科를 專研호면 則 適足히 卬 其 性質을 敗壞호며 其 道德을 劉喪호지니 故 教科統一의 中心點은 科學도 아니며 文學도 아니며 歷史도 아니며 地理도 아니오 獨立 自營호야 能히 社會의 生活을 爲 勳 ㅅ름에 在호니라. 科學이라는 者는 皆 自然의 理라. 其 人身에 關係ㅣ 甚히 密切치 아니호 故로 以호야 教科 統一의 中心點됨이 分裂의 巨禍를 招호가

恐히며 文學이 亦 教科統一의 中心點됨을 不得함은 誠히 文學은 社會의 經驗을 發表함에 不過히야 決코 結果 | 無히니 卽 或 有히는 其 根據 | 亦 恟恟無憑 恐히며 歷史 | 亦 其 中心點됨을 不得함지라. 蓋 歷史 範圍는 社會의 變遷 進退를 記述함이니 雖 教育의 價値는 有히는 社會를 依賴히야 獨立키 不能히며 地理도 亦 然히니라. - 柳瑾(1907), 『教育學原理』, 『大韓自強會月報』 第八號.

ㄷ. 審美主義 此 主義는 實利를 爲히야 學問을 修함으로써 陋히다 云하고 人의 氣韻을 高尚함과 嗜好의 優美한 點에 置重히야 美術 文學으로써 教育의 目的을 作히는 者라. 此 主義도 亦是 教育上에 完全타 可謂치 못함지니 何者오. 吾人은 但히 文學 美術로는 此 世界에 生活히기 難히고 其 必 實用的 知識 技能이 有함을 要함은 不言 自明함 豈더러 特히 美는 往往히 奢侈 情怠의 風이 伴히고 文學은 浮虛 輕佻의 弊를 惹히는 恐怖가 有함이리오. 然히나 吾人은 又 專히 文學 美術을 排斥함이 아니라. 其 必 實用的 知識 技術과 并行히 後에야 始可히다 ㅎ노라. - 兪鈺兼(1908), 『簡明教育學』(徽文館) 第二編 第一章

이 세 편의 글은 근대 계몽기의 교육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문학 교육론이다. 기무라지치(1896)의 『신찬교육학』은 일본인 저술이지만 한글 토가 달려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시기 설립된 한성사범학교용 교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에서는 문학상의 아취는 우미한 호기심이 되며, 음악의 풍류와 운치는 미감을 기르게 한다고 보았다. 유근(1907)에서는 교과를 ‘인간 생활 중심의 교과’와 ‘자연 생활 중심의 교과’로 구분하고, ‘경전’, ‘교회역사’, ‘보통 역사’, ‘문학’을 ‘의지(意志)’를 가르치는 인간 생활 중심의 교과로 설정하였다. 비록 문학 교육을 중시하지는 않았지만, ‘문학’이라는 개념어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학 교육’을 논의한 점은 의미 있는 일로 보인다. 또한 유옥겸(1908)에서는 기무라지치와 마찬가지로 ‘심미교육’의 차원에서 문학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도적인 차원에서 문학 교육이 등장한 것은 일제 강점기 이후로 보인다. 비록 1895년 ‘소학교 교칙 대강’의 교과목으로 ‘修身 讀書 作文 習字 算術 體操, 本國地理 本國歷史, 圖畫, 外國語, 裁縫’(심상과, 소학교 교칙대강 제8조)를 두고, 학부 편찬의 『국민소학독본』(1895)이나 『신정심상소학』(1897)에 교훈적인 설화나 다수의 전기가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근대 계몽기로부터 일제 강점기 제1차 조선교육령 시대까지는 학교령이나 학교 규칙 등에서 교과목 또는 교과 영역으로서 ‘문학’을 설정하지는 않았다. 학교 규정에서 ‘문학’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22년에 개정된 제3차 조선교육령부터로 보인다.<sup>6)</sup> 이른바 신교육령으로 불린 이 교육령의 학교 규정에서는 ‘문학상의 취미’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9) 제3차 조선교육령

ㄱ. 고등보통학교 규정

第十條 國語及漢文은 普通의 言語, 文章을 了解케 하며 正確 且 自由로 思想을 表彰하는 能力을 得케 하며 文學上의 趣味를 養하며 兼하여 智德啓發에 資함으로써 要旨로 흠. ……

第十一條 朝鮮語及漢文은 普通言語, 文章을 了解하며 正確 此 自由로 思想을 表彰하는 能力을 得케 하며 文學上의 趣味를 養하며 兼하여 智德의 啓發에 資함으로써 要旨로 흠.

ㄴ. 여자고등보통학교 규정

第十條 國語는 普通言語, 文章을 了解하며 正確하고 且 自由로 思想을 表彰하는 能力을 得케 하며 文學上의 趣味를 養하며 兼하여 智德啓發에 資함으로써 要旨로 흠. ……

第十一條 朝鮮語는 普通言語, 文章을 了解하며 正確하고 且 自由로 思想을 表彰하는 能力을 得케 하며 文學上의 趣味를 養하며 兼하여 智德啓發

6) 일제 강점기 교육령 제정과 개정은 윤여탁 외(2005: 57-58), 『국어교육 100년사』, 서울대학교출판부를 준거로 하였다.

에 資 淸으로써 要旨로 淸.

ㄷ. 사범학교 규정

第十條 國語及漢文은 普通의 言語 文章을 了解하며 正確 且 自由로 思想을 表彰하는 能力을 得케 하며 文學上의 趣味를 養하며 兼야 智德啓發에 資 淸으로써 要旨로 淸.……

第十一條 國語는 普通言語, 文章을 了解하며 正確 且 自由로 思想을 表彰하는 能力을 得케 하며 文學上의 趣味를 養하며 兼야 智德啓發에 資 淸으로써 要旨로 淸. ……

第十二條 朝鮮語及漢文은 普通言語, 文章을 了解하며 正確하고 且 自由로 思想을 表彰하는 能力을 得케 하며 文學上의 趣味를 養하며 兼야 智德啓發에 資 淸으로써 要旨로 淸.……

第十三條 朝鮮語는 普通言語, 文章을 了解하며 正確하고 且 自由로 思想을 表彰하는 能力을 得케 하며 文學上의 趣味를 養하며 兼야 智德啓發에 資 淸으로써 要旨로 淸.

이 교육령에서는 고등보통학교의 ‘국어급한문’(당시의 일본어), ‘조선어 급한문’,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국어’, ‘조선어’, 사범학교의 ‘국어급한문’, ‘국어’, ‘조선어급한문’, ‘조선어’ 등의 언어 관련 교과목에서 ‘문장 이해력’과 ‘표현 능력’을 목표로 하면서 ‘문학상 취미’와 ‘지덕 계발’을 요지로 하였다.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교육령에 언급한 ‘문학상의 취미’와 ‘지덕’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신교육령에서는 법적 차원에서 문학 교육이 포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IV. 문학 교육 이론의 형성과 변화

신교육령기 학교 규정에 문학 교육이 포함되었다는 사실과 문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시기 문학 교육은 언어 관련 교과 요지의 하나일 뿐, 교과 영역이나 교과목으로 설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식민 시기의 문학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어떠한지를 규명한다면, 학교 규정의 문학 관련 진술이 문학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를 의도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학교 규정에 문학 교육이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기를 전후하여 ‘문학 교육’과 관련된 다수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20년대 전후에는 ‘문학’과 ‘문예’라는 개념어가 형성되고, 다수의 문예사조가 도입되었다. 『매일신보』나 『동아일보』에서도 서구의 계몽사상이나 교육운동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기도 하였다. 묘향산인(妙香山人)의 ‘改造의 路頭에 立 ㅎ야 時代의 思潮를 說함’(『매일신보』1920.5.1.~5.6. 5회), 여시관(如是觀)이라는 필명의 ‘英國 教育에 在한 古文學’(『동아일보』1920.6.26.~28.3회) 등은 문예사조와 서구의 문예 교육을 소개한 글이며, 정언생(鼎言生, 신정언)의 ‘泰西教育의 歷史的 觀察’(『동아일보』1921.6.26.~6.30. 36회), 필자 불명의 ‘歐洲 思想의 由來’(『동아일보』1922.3.10.~6.22. 84회) 등은 서구의 문예사조 및 계몽사상을 소개한 대표적인 예이다.

엄밀히 말하면 문학의 교육적 가치는 근대식 교과서의 우화나 전기에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문학적 교재를 사용하고 교훈적 해석을 가하는 형태의 문학 교육이 그러한 예이다.<sup>7)</sup> 그러나 문학 제재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7) 예를 들어 학부 편찬(1897)의 『신정심상소학』 제1권 제17과에서는 ‘취의 이익기’를 소개하고, “덕테 아모 것이라도 모르는 것슬 못지 아니코 直行하면 意外 災禍를 맞을

문제와 문학 교육과 관련된 이론이 형성되는 과정은 별개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교훈성을 내포한 문학 작품을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 선정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볼 때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학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문학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며, 내용을 선정하고 교수하는 문제는 언어 교과 또는 영역의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문학 교육’, 좀더 정확히 말하면 ‘예술교육’이나 ‘문예교육’ 논의가 본격화된 시점은 1920년대 이후로 볼 수 있다.<sup>8)</sup>

일제 강점기 문학 교육론은 ‘문학’의 범주보다 넓은 ‘예술교육’의 차원에서 제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송순일(1924)은 이지(理智) 편중의 교육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예술교육의 필요’를 주장하였다.<sup>9)</sup>

#### (10) 兒童의 藝術教育

現下 教育界에 改善을 要함이 一二에 至할 바 아니나 筆者는 特히 從來의 教育이 淸우도 理智 偏重의 傾向을 帶하여 人間의 가장 高貴한 藝術教育을 等閒에 붙임으로 遺憾이다. 教育者 諸君에게 一考를 促하려 하는 바 現今 盛히 唱導되는 藝術教育의 思潮에 鑑하여 一層 兒童教育者의 覺悟가 切實 하여야 할 것이다. (중략) 어린이들의 情操를 무엇으로 기르려느냐. 그들의 天賦된 藝術的 本能이 엇더한가 보라. 그들은 노래를 듯거나 그림을 보거나 童話를 드를 새에는 無我境에서 雀躍不已하지 안는가. 남들은 學校劇이니

거시오이다.”와 같은 해석을 가하고 있다.

8) 1920년대 이전에도 소설이나 시의 교육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김문연(金文演)의 논설 『小説과 戲臺의 關係』(『대동학회월보』제14호, 1909.3.), 『매일신보』1911년 8월 11일자 사설 『詩學의 衰退』 등은 소설과 시의 교육적 문제를 다룬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들 논설은 소설과 시의 교훈적 가치에 관련된 논의만을 담고 있다.

9) 宋順鎰, 『兒童 藝術教育』, 『동아일보』, 1924.9.17.

童話劇이나 藝術教育大會이니 놀납게 써드는데 우리는 언제나 舊殼을 脫解  
할는지 開心할 뿐이다……

이 논설은 아동의 정조 교육(情操教育)을 위해 학교극, 동화극, 예술교육대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여기서 제기한 ‘예술’은 ‘창가, 도화, 수공, 동화’ 등의 모든 분야가 포함된다. 이 경향은 ‘兒童 藝術教育’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한 정인섭(1928)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sup>10)</sup> 이 논문은 1928년 ‘세계 아동 전람회’ 관람 이후 이 시기 제기된 ‘아동 중심의 신교육 사상’을 소개하고, ‘예술교육의 필요성과 가치’를 논한 논문이다. 그는 신교육의 특징을 ‘주입식 복종’에 대립한 ‘창조성을 발휘하는 교육’, ‘주지주의’에 대립한 ‘전인격적 독자 교육’으로 규정짓고 이를 위해 예술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 (11) 兒童 藝術教育

…… 以上에 말한 바 特色을 가진 教育論은 곳 所謂 말하는 最近의 藝術教育이나 人間の 自由性의 見地에서 본다 하더라도 藝術의 創作 가티 作者의 自由를 必要로 하는 것은 없다. 作者의 精神의 自由 업시 眞正한 藝術은 到底히 創造치 안는다. 그리고 主知主義에 對한 反動으로 藝術教育이 主張됨은 勿論이러니와 知識 偏重에 빠지지 않는 全人的 教育의 見地에서 본다 하더라도 藝術教育은 만흔 效果를 가졌다 할 수 있다. 또 新教育의 方法으로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體驗과 作業’은 藝術의 生命이요 圖畫, 音樂, 演劇이 모든 것은 그 本質上 兒童의 體驗과 創作을 發揮하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生活指導의 立場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兒童의 生活 그것이 벌써 藝術이요 繪畫, 音樂, 舞踊, 劇을 그 專門으로 가르치지 안는다 하더라도 兒童의 生活를 指導하는 方便으로써 얼마나 큰 힘을 가졌든가는 모든 方面의 學說에서 能히 肯定되어 잇든 바이다. 그러면 藝術教育이란 무어냐? 하면

10) 鄭寅燮, 『兒童 藝術教育』, 『동아일보』, 1928.12.11.~13.

狹義로 말하면 藝術의 創作과 鑑賞이니 卽 繪畫, 彫刻, 工藝 建築, 音樂, 文藝, 演劇, 舞蹈 等 모든 藝術의 創作과 鑑賞을 教育함이다. 그러나 廣義로 釋하면 藝術的 精神, 藝術의 方法에 依한 모든 教育을 意味하나니 이것은 美的 體驗을 통한 人間教育이다.

인용문에 나타난 것처럼 예술교육은 인간의 자유성을 발현하는 교육으로 전인 교육을 지향한다. 정인섭(1928)의 예술교육은 예술의 ‘창작’과 ‘감상’을 목표로 하며, ‘회화, 공예, 건축, 음악, 문예, 연극, 무용’의 예술 전반을 포괄한다.

그러나 정인섭(1929)에서는 예술 가운데 ‘문예’에 주목하여 교육과의 관계를 논하고자 하였다.<sup>11)</sup> 이 논문은 미적 감상력과 표현 능력 향상의 차원에서 문예의 효과를 논하고, 협의의 문예 교육의 중심 대상이 ‘문학’임을 주장하였다.

#### (12) 文藝的 教育의 處地와 所感

…… 朝鮮에 잇서서는 文藝的 敎養이란 것이 學窓에 滲通함이 極히 微弱하고 다만 新聞 雜誌=이것도 少數요 旺盛치는 못하지마는=等を 통한 卽, ‘저-나리즘’에서 겨우 그 그림자를 볼 자름이다. 그럼으로 文藝圈에 나아가기 前에 文學에 對한 比較的 系統 잇는 基礎 智識을 解得치 못한 것 가대서 外國 가트면 中等 程度 學校의 講堂이 아니면 들을 수 업는 文藝上의 論戰이 許多하고 文壇上의 커다란 提唱이란 것이 文學入門의 概論에서 엿볼 수 잇는 것이 보이는 세도 있다.

이러케 생각해 올 세 우리 朝鮮 文學 豎立 云云을 考慮할 세 文藝的 試鍊이 專門學校의 專門 科目에서는 勿論이러니와 中等學校 또는 普通學校에 잇서서도 各其 程度로서의 妥當한 文藝的 敎養이 잇기를 希望함도 決코 хот

11) 鄭寅燮, 「文藝的 教育의 處地와 所感」, 『東亞日報』, 1929.5.2.~5.9. 총 9회에 걸쳐 연재된 논문이다.

된 생각이 아닌 줄 생각한다. 더욱이 文藝의 材料의 教育的 價値를 適用하는 意味에서 文藝의 效果를 더 넓은 見地에서 美的 陶冶의 一部로서라도 만히 利用하기를 願하는 바이다. 이것은 決코 그들을 모다 文藝家로 曼들기 爲한 것이 아니로되, 그 教育的 效果를 一般 教養에 使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가운데서 狹義로는 文學에만 特히 素質을 가진 者는 勿論 將次 專門으로 文學 그것만에 專心하겠지만 大體로 朝鮮의 學校教育이 아즉도 生생한 人間美를 가진 綜合的 目標에 向하지 安함이 濃厚하다.

문학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인섭(1929)에서도 ‘문예’와 ‘문학’을 엄밀하게 구분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 논문이 가치가 있는 것은 ‘문학 교육’의 본질이 인간의 이상(理想)인 진선미(眞善美)의 추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자기실현’, ‘창조성’, ‘유희성’을 본질로 하는 언어 교육이자 문학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는 원론적인 논의<sup>12)</sup>가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정인섭(1929)의 논문이 근대 계몽기의 ‘우화’, ‘전기’의 교훈적 교재화나 1920년대 이후 주목받기 시작한 ‘동화 운동(童話運動)’<sup>13)</sup>과 같이 자연 발생적인 문학의 교훈적 가치를 넘어, 문학의 본질을 고려한 문학 능력 배

12) 김대행 외(2000)에서는 문학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시각을 설명하고, 문학 교육을 “문학 능력 향상을 통하여 인간다움을 성취하는 교육 활동”으로 규정하였다. 이때의 문학 능력은 “문학의 사실, 개념, 방법, 태도에 대한 앎을 내용으로 하고, 그것이 신체적·인지적·심미적·기능적·정서적·사회적·도덕적 등 삶의 전 영역에 걸친” 신념적, 행동적, 의식 구조적 통합을 의미한다.

13) 1923년 3월 방정환을 중심으로 ‘동경 색동회’가 조직되고, 『어린이』 잡지가 창간되면서 동화와 동요 보급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동화 작법이나 동화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는데, 『동아일보』에 소개한 자료로도, 凹眼子의 『童話에 對한 一考察=童話作者에게』(1924.12.19.), 社說 『童話와 文化-안테센을 回顧함』(1925.8.12.), 丁洪敎의 『兒童의 生活心理와 童話』(1925.6.18.~19.), 方定煥의 『童話作法=童話짓는 이에게』(1925.1.1.), 金完東의 『新童話 運動을 爲한 童話의 教育的 考察』(1930.2.16.~22, 5회), 金壽昌의 『現朝鮮 童話』(1930.12.26.~30. 5회) 등이 있다.

양을 목표로 한 문학 교육론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보여줌을 의미한다.

## V. 결론

김중신(1997)의 『문학 교육의 이해』의 ‘책머리에’에서는 “문학의 역사는 곧 문학 교육의 역사이다.”라는 명제로 문학과 문학 교육사의 관계를 집약한 바 있다. 작품이 존재하는 한 그것을 읽는 독자가 있게 마련이다. 독자가 얻는 문학적 효과 그것은 곧 교육적인 문제와 관련될 수 있다. 특히 교훈적 가치를 담고 있는 작품의 경우 그것은 언제든지 교육 재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문학 교육의 역사는 문학의 역사와 동일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비록 이 논리를 따르지 않더라도 근대식 학제 도입 이후 일제 강점기까지 각종 독본류 교과서에 문학 작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새삼스럽게 논의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문학 교육과 관련된 이론은 ‘문학’이 ‘언어의 예술’로 개념화되고, ‘문예’와 ‘예술’과 관련된 이론화가 진행되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 밖에 없다. 광복 이후 국어의 회복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희승은 ‘국어 교육의 몇 가지 문제’(『새교육』제2권 제2호, 1949.3.)를 제기하면서 “國語는 文學的 教材가 中心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중략) 主知 教育의 偏重을 是正하고 德性 涵養의 主動的 職責을 다할 것은 이 國語教育이라 생각한다. 國語는 본래 가장 貴重한 文化財인 同時에 또한 가장 진실하고 중요한 陶冶材가 되는 것이다.(하략)”이라고 한 것은 국어 교육에서 문학 교육이 갖는 위상을 인식한 결과이다. 이를 고려할 때 근대 계몽기에 등장한 문학의 개념화나 일제 강점기의 ‘예술 교육론’, ‘문예 교육론’은 광

복 이후 전개된 문학 교육론의 토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문학의 개념화 과정에서 ‘문학’과 ‘문예’, ‘예술’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이는 예술교육과 문예교육을 뭉뚱그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지만, 문학 교육의 이론화 과정에서 근대 계몽기의 문학 이론과 일제 강점기의 문예 교육론을 거쳐 광복 이후 ‘문학 중심의 국어 교육론’이 제창되었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참고문헌】**

- 구자황, 『일제강점기 제도권 문학교육 -교과서와 민간 독본의 양상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34, 한국문학교육학회, 2011, pp.55-79.
-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0.
- 김중신, 『문학교육의 이해』, 태학사, 1997.
- 박영기, 『한국근대아동문학교육의 형성과 전개과정 연구』, 한국외대 박사학위논문, 2008.
- 박중훈, 『일제강점기 정인섭의 친일활동과 성격』, 『역사와 경계』89, 부산경남사학회, 2013, pp.177-215.
- 배수찬, 『근대 초기 서양문학 수용의 세 국면과 문학교육』, 『문학교육학』39,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pp.61-77.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학사전』, 대교, 1999.
- 우한용 외, 『문학교육과정론』, 삼지원, 1997.
- 유옥겸, 『간명교육학』, 휘문관, 1908.
- 윤여탁 외, 『국어교육 100년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이동순, 『일제강점기 가요시 장르의 문학사적 가치』, 『인문연구』60,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pp.187-214.
- 이민희, 『정인섭(鄭寅燮)이 바라본 폴란드·폴란드 문학』, 『한국현대문학연구』11, 한국현대문학학회, 2002, pp.313-336.
- 이아람찬, 『초기 한국영화교육사 연구: 1920년부터 1940년대를 중심으로』, 『씨네포럼』14,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2012, pp.311-336.
- 임희경, 『일제 강점기 번역·번안 동화 앤솔러지의 탄생과 번역의 상상력』, 『문학교육학』39,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pp.211-249.
- 장경남, 『일제 강점기 조선어과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문학』, 『우리문학연구』39, 우리문학회, 2013, pp.203-240.
- 전봉관, 『일제강점기 비제도권 문학교육의 양상-독서,동인,동인지,토탈문예강연,현상문예-』, 『문학교육학』34, 한국문학교육학회, 2011, pp.81-108.
- 정충권, 『전통지식인이 바라본 근대계몽기의 교육과 문학』, 『문학교육학』39,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pp.33-59.
- 정호웅, 『근대계몽기 문학과 문학교육』, 『문학교육학』39,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pp.9-32.

조희정, 『근대계몽기 학교 교육 내 문학교육의 특징』, 『문학교육학』39,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pp.79-114.

최지현, 『저항문학과 문학교육-일제강점기의 시문학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34, 한국문학교육학회, 2011, pp.31-53.

홍경표, 『정인섭의 한국시 영어번역 -『대한 현대시 영역 대조집』을 중심으로』, 『한국말글학』23, 한국말글학회, 2006, pp.327-357.

木村知治, 『新撰教育學』, 日本國會圖書館本, 1896.

Abstract

The History of Education Arguments Related to Literature  
from Early Modern to Japanese Colonial Period

Kim, Kyung-Nam

Literature is defined as arts of language commonly, but Korea traditionally Chinese alphabet MUNHAK(文學) meant 'learn to knowledge or writings' the literal sense. The concept words of literature were formed by the Korean students in Japan in early modern times. For example, Lee Gwangsu wrote for the *DAEHANHEUNGHAKBO*(the journal of foreign students group, 大韓興學報) No 11(1910.3.) about the value of literature.

Literature has been emphasized from early modern to the present in Korean Education. This concept was formed by esthetic education in early modern time, but literature education theories did not appear at this time. But some literary people wrote about the needs of artistic instruction including literature.

I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ism, some writers and scholars wrote about MUNYE(文藝, this term means arts and literature, but some writers used literature) education. Jeong Inseop(*DONGA ILBO*, 1928.12.11.~13.) wrote an article related to the needs of artistic instruction and literature education for example. I think that they did not distinguish between literature and other arts, and these ideas were important for the history of literature education. Though the literature education goes back to the pre-modern time, the theories of literature education were introduced at this time.

Key Word : literature, artistic instruction, early modern, Japanese colonial period, theory.

김경남

소속 : 단국대학교 산학협력연구원

주소 : (130-762)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2동 삼성 래미안 장안2차 아파트 218-1104호

전화번호 : 010-5273-9247

전자우편 : surhera@hanmail.net

<p>이 논문은 2014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4년 7월 2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7월 25일 게재 확정됨.</p>
--

